

지역 목소리 경청...‘선을 넘는 ACC’ 소통 포럼 눈길

亞문화전당, 19일 국제회의실서 …시민 200여명 참여

지역협력협·지역협력 등 5개 키워드 선정·의견 공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우(김상우)은 지난 19일 오후 국제회의실에서 지역 소통 포럼 ‘선을 넘는 ACC’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ACC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자 마련됐다. 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규격 회화 틀을 벗어난 타운 힐 미팅(town hall meeting) 형식으로 진행해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사전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미리 선정한 ACC 콘텐츠, 지역 협력, 사용 방법, 공간 활용, 2026 등 5가지

키워드에 대해 패널 논의 후 시민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주요 패널은 ACC 김상우 전당장을 비롯해 정은영 기획운영과장, 박진석 전시기획과장, 정승재 공연사업과 학예연구관, 조정란 전당장단 경영기획본부장과 ACC 지역협력협의 소속 회원류 재한회장(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과 원광연 예술감독(광주시립극단), 하루 K 작가(한국화), 이상훈 이사장(광주영화영상인연대), 김서라 작가 등 총 10명이다.

먼저 ‘ACC 콘텐츠’ 부문에서는 콘텐츠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19일 오후 국제회의실에서 지역 소통 포럼 ‘선을 넘는 ACC’ 행사를 진행했다.

대해 ACC 측은 “ACC는 창제작기관으로 동시대 담론을 담고 있다”면서 “관객 입장에서 보는 쉬운 해설과 체험, 소통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대중의 눈높이에 맞

춰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지도가 있는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을 보고 싶다는 바람에는 “대중성이 있는 전시와 공연을 위해 전당재단에서 많

클럽트 전시까지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지역 협력’에 관한 질문에서 ACC 측은 “예비 예술가들에게는 대나무 정원을, 지역 원로 예술가, 지역 및 신진 예술가들에게 전시 공간을 할애하는 등 전생애적인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서 “지역 작가만을 위한 전시 공간인 복합전시 7관도 내년에 개관할 예정으로,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예술가에 대한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고 말했다.

휴식 공간이 많이 없다는 ‘공간 활용’에 관한 물음에서 ACC 측은 “내년에는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 ACC 주변 상권이 더욱 발전하고, 예술적 상품들이 지역민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지”라고 답했다. 정체경 기자 view2018@

“막막할 때 힘 됐다”…전남 무료법률상담 호응

최근 3년 만족도 95% 이상
상담 수요도 꾸준히 증가



전남도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최근 3년 연속 이용자 만족도 95% 이상을 기록하는 등 도민을 위한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1일 전남도가 실시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95%, 2024년 97%, 2025년 상반기 9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높은 만족도를 유지했다. 상담 건수도 2023년 1341건, 2024년 1577건, 2025년 11월 현재까지 1227건 등 이용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상속 분쟁 등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

하지만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전남도가 위치한 무료법률상담관(번호사) 40명이 대면·전화·온라인 방식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도 본

격주 월요일 대면상담을 하고, 모든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법률상담을 받은 도민들은 “막막한 상황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경제적 부담이 큰데 무료 상담이 큰 힘이 됐다”며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였다.

실제로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으나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순천의 한 시민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경매 신청을 통한 보증금 회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등 구체적 해결 방안을 안내받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전남도는 2026년부터 법률상담 수요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도 운영할 계획이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대표전화(1899-8272)로 문의하거나, 전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http://law.jeonnam.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문경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법적 대응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며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이 언제든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실력 쌓는데 도움”…동강대 실습기기 기증 잇따라 방사선학과·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RISE사업단 수혜



동강대학교 방사선학과는 최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영상의학과 판독용 모니터 2대를 기증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기증 받은 모니터는 한 대당 1500만원, S/W의 경우 기기와 별도로 200만~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방사선학과 류영환 교수는 “방사선사 국가고사에서 실기시험 과목 중 ‘정도(정확도) 관리’가 있다. 학생들이 실제 병원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경험하며 이론 및 실무 능력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도 관리’는 방사선 영상 및 장비의 정확도, 안전성, 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 절차와 방법을 평가하는 과목이다.

2020년 신설된 동강대 방사선학과는 2023~2024년 ‘방사선사 국가시험’에서 전국 평균 합격률을 훌쩍 뛰어넘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 후배를 사랑하는 선에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다.

최근 뉴바디짐 휴트니스센터 김영학 관장이 하체 근력 강화 복합 운동기기인 ‘글루트(Glute) 머신’ 한 대를 기증했다.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당시 사회체육과) 94학번 출업생인 김 관장은 매년 산업체 대표로 모교를 방문해 30년 차이가 나는 후배들을 위해 교내 피트니스 센터에 구비돼 있지 않은 운동기기를 전달하

고 있다. 김영학 관장은 “지난해에는 상체운동 기구 솔더프레스 머신을 기증했다. 헬스, PT 등 운동도 트렌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후배들이 현장 맞춤형 전문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강대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는 피트니스 분야 특성화 학과로 생활체육지도자, PT전문가, 재활운동전문가 등을 육성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제시판

일정 △비영리민단체 노후를 드는 사람들 노후생활을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종장년 넘버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료·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지원자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장애인(3급 이상) 등의 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 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인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일간정양입지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견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온세 (음력 11월 4일)

48년생 잔치에 가는 일을 삼가라
60년생 너무 오래 끌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일
72년생 자녀의 일 때가 아니니 물러서라.
94년생 직장은 살고 다른 곳에 가지고 한다
96년생 취직이 깨끗이 되지어서 미용 이프다

51년생 가장 균형적인 것을 살펴보라
63년생 과감하게 끌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
75년생 서로 일에는 침견하지 말라
87년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임하라
99년생 귀하의 주변이 매우 어수선

54년생 여행, 출장 생기면 다음으로 미뤄라
66년생 하나님 택하라. 다 탐하면 앤운 온다
78년생 문서로 사건 분분해도 내 것이 될 것
90년생 마음은 조급하고 몸은 사방으로 간다

57년생 집안의 불미한 일이 관계로 일어난다
69년생 시작할 때 컵棬하지만 벌어 질 것
81년생 주변 사람들은 도와줄 생각을 안한다
93년생 불길한 일이 생길 수 있다

49년생 옥심을 부리면 도리어 빼앗긴다
61년생 상대는 귀하보다 한 수 위다
73년생 아이디어 적중돼 행운이 있는 날
85년생 문서로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
97년생 의리에 맞지 않는 금전을 받지 말라

52년생 금전 거래는 신중히 생각하라
64년생 감정을 공적인 장소에서 풀지 말라
76년생 모험성이 있는 일도 성공할 수 있다
88년생 걱정에 있으나 사람을 못 만난다

55년생 재물에 뜻 두지 말고 내 몸을 생각하라
67년생 배우자의 연인 가까이 하면 손재 있다
79년생 이성의 의견에 귀를 기울려 보자
91년생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해야만 한다

58년생 중요한 결정은 보류하라
70년생 수입이 생기고 성가신 일은 해결 될 것
82년생 운수가 대길이라 나간 문서가 들어온다
94년생 남자와 치량 동승해 이동하지 말라

50년생 사업을 시작을 하면 들보기 무너질 것
62년생 아랫사람에게서 작은 도움을 받는다.
74년생 충처럼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것
86년생 일자리에 미움이 복잡하다
98년생 투자 유혹에 주의하지 않으면 낭패

53년생 자녀 일, 말실수가 우려됩니다
65년생 귀인이 기까운데 있으니 찾아보라
77년생 독불장군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89년생 피면 또는 좌천할 수 있는 운세

56년생 옥심 부려 신하게 덤비면 손재가 크다
68년생 빼앗기는 날이니 지키기 잘 해야한다
80년생 오랫동안 애쓴 일이 성취될 것
92년생 이성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날

58년생 아랫사람이 권하는 것으로 선택하자
71년생 분주하지만 쓸데없는 수고에 그친다
83년생 즐을 기하면 양에로운 일이 있을 것
95년생 도움을 벌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광주여대 RISE사업단 ‘창업 현장실습’ 진행



광주여자대학교 RISE사업단은 최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금남로에 위치한 트레이크업샵에서 ‘2025학년도 제4회 창업 현장실습’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프로그램에는 미용 및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들이 참여해 메이크업샵 현장 견학과 메이크업 시연을 통해 실무 중심의 경험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실습은 메이크업샵 운영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시연 강강을 통해 전문 기술과 창업 노하우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메이크업 시연은 참여 학생 중 한 명이 직접 시연 모델로 참여해 현장 몫입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하나은행 후남영업그룹과 함께 노사민 공동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하나은행 후남영업그룹과 함께 노사민 공동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양 기관 임직원 20여명은 직접 담근 김치 1300kg를 광주시 소재의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7개 시설에 전하며 지역 사회에 헌신한 은기를 전파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양 기관 임직원 20여명은 직접 담근 김치 1300kg를 광주시 소재의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7개 시설에 전하며 지역 사회에 헌신한 은기를 전파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인사

조선대학교 △행정부총장 강희숙
글로벌인문대학 교수